

말씀은 너희 선생이다

작성일 : 2012. 10. 5(금) PM 09:00

작성자 : 채미정

(충남 순회를 위한 충남 생방송 기도회 때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진정 간구의 소리가
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순회의 의미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게 해 주세요.)

* 성자 주님의 말씀 *

나의 말을 완전 생명시하고,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과정 중 결과가 보인다.
그것이 너희의 휴거의 모습이다.
이제는 목숨 다해
말씀 지키기, 말씀 행하기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온 시대 사명자 너희 선생처럼
너희도 이 시대 말씀, 나 성자의 말씀 듣고
말씀이 육신 되어야 한다.

분체의 분체 부흥강사가
너희 섭리인들의 견본이다.
육적 자연성전을
오직 보낸 자의 말대로 실행하여
성전을 가꾸는 수련원장처럼
보낸 자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천지를 뒤집는 혁신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목숨 걸고 행한다면 목숨을 구하고
사망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느냐? 믿어야지. 믿어라!

결과를 보아라.
그때까지 기다렸다 믿겠느냐?
어리석도다.

말의 힘, 말의 능력에
너희의 심령이 굴복되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역사의 끝날 보여질
강권적인 이 시대 말씀의 승리이다.

이 시대 말씀은 끝끝내 이루어진다.
시대 말씀 자부심이
선생의 자부심이다.
이 시대 성자 본체의 말씀으로
섭리사는 승리한다.
끝끝내 승리한다.

지금 너희 선생의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낙심하느냐?
아니다.
시대 말씀이 활개 치며 비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 선생의 모습이다.
비상하며 날아오르며
이 세상 만물, 모든 인간, 우주, 천국
모든 영계를 활개 치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너희 선생임을 깨달아라!

말씀은 너희 선생이다.
고로 너희 선생의 육은 자유롭지 못해도
너희 선생은 복음과 함께
육으로는 전 세계 각국으로
영으로는 천상천국,
모든 영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진정 진정 진정 깨닫고 깨닫고 알아라.

(주님, 진정 말씀이 선생님임을 깨닫고
진정 온전히 사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
너희 선생 곁에 꼭 붙어살아라.
즉 말씀에 꼭 붙어살아라.
나의 사랑, 선생의 사랑,
말씀 통해 가리니
온전히 받아
사랑의 성자의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키어라!
나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랑의 말씀을 준다.
부디 마지막 책임분담 잘하여
온전한 사랑의 신부의 영으로 만들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신랑 성자.